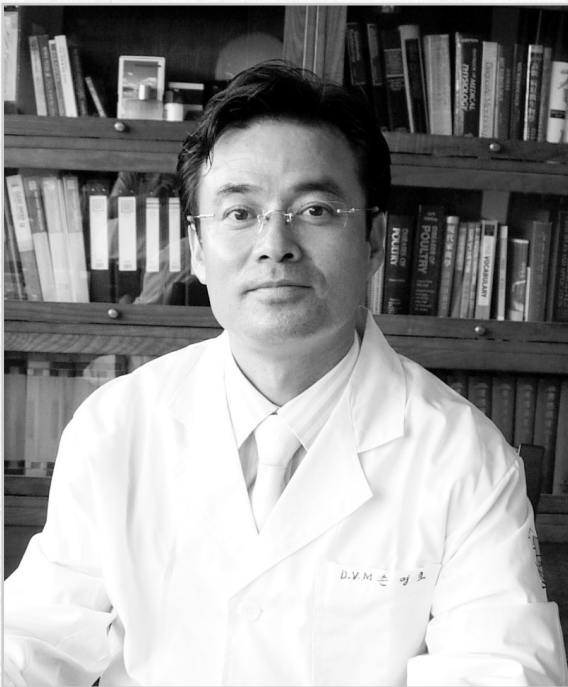


●●● 손영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장

항생제 없는 농장 만든다



1998년 당시 경기도 이천시 신하리에서 59m²(18평)의 점포를 얻어 실험대 2개로 출발한 동물병원이 9년만에 1,157m²(350평)의 대단위 가금질병연구소 개소를 앞두고 있다. 본고는 국내 전체 산란계 숫자의 10%를 관리하고 있는 가금질병연구소 손영호 소장을 만나 닭질병 진단의 노하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손영호 소장

1989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2005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석사 졸업
2005. 3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사과정
1998 (현)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
(현)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문위원, 역학조사위원, 조류질병과 전문평가위원, 분야별협의체(양계분야) 위원
(현)한국양계수의사회 운영위원 학술부회장
(현)대한양계협회 위생방역대책위원

수의학 전공의 인연

손영호 소장은 충북 음성에 가금진료연구소 개소를 앞두고 어느 때 보다 분주하다. 국내 양계산업이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가금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부터 꿈꾸어 왔던 터라 가금질병연구소 개소는 양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손영호 소장이 이처럼 양계산업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부친께서 육계, 산란계 뿐만 아니라 타 가축까지 사육을 하면서 농가의 애로사항을 절실히 느껴왔던 터라 전공도 수의학을 공부하였고, 현재 전북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정도로 닭 질병에 대해서는 어느 전문가 못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

손영호 소장은 학업을 마치고 백신회사인 코미팜(당시 한국미생물연구소)에서 6년간 수의서비스 팀장과 학술부장을 맡아 근무한 것이 현재의 반석가금진료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손영호 소장은 당시 모든 장비를 비치하고 차량을 이용해 현장 진단을 실시하는 서비스카를 운영하는가 하면 사랑방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과 더욱 친숙해 졌다. 당시 업적중 하나는 1998년 전국적으로 가금티푸스가 피해를 주고 있을 때 티푸스 백신 개발에도 직접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기본

손영호 소장은 '농장을 위하는 마음'이 수의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임을 강조한다. 즉 농장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석가금진료연구소에서는 빠른 질병진단과 만족할 만한 처방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즉, 농장에서 가검물 및 혈청을 의뢰받은 지 만 2일 안에는 모든 질병을 진단하여 농가에 통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것이 9년간 전 산란계군의 10%를 관리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온 원천이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는 손영호 소장을 포함하여 수의사 2명과 실험실 보조요원 2명, 사무실 행정 및 데이터 관리업무 3명 등 총 7명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

손영호 소장은 농장을 방문하여 폐사계의 검사, 채혈, 상담, 계사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손영호 소장은 농장을 반드시 주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오히려 농장주보다 1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이 계군상태의 변화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 오는 10월 11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반석가금진료연구소

항생제 처방은 이제 그만

손영호 소장은 모든 질병은 환경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 또한 계분만 잘 관찰하고 관리해도 농장의 질병의 원인을 상당부분 알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석가금진료연구소의 관리농장들은 약품비중중 항생제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다. 손영호 소장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국의 양계 수의사들도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제1종가축전염병인 ND의 경우 2차감염을 막기위해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것으로 아는 농장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상식이라고 설명한다. 질병이 농장에 들어왔을 경우 전체 계군에 감염되기까지는 1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3일 만의 처방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무항생제, HACCP, 유기농 등 양계산물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손영호 원장은 10월 11일 연구소 오픈식을 앞두고 있으며 차후 1,652m²(500평) 규모의 양계연수원을 가금진료연구소 옆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수원이 건립될 음성은 중부, 경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연결되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 양계인들은 물론 국내 양계인들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